

사무엘상 21. 다윗을 박해하는 사울 (삼상 19 장 1-24 절)

들어가기

지난 장부터 나타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본 장부터 더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직접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의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알린 후,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키시며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1.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1-7 절)

1) 사울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1 절)

- ✧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졌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라났은!
- ✧ 18 장 - 은근히 제거하려 함 -> 19 장 -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거하려 함!
- ✧ 고의적인 모든 죄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리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2) 다윗은 심히 기뻐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7 절)

- ①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리고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함. (2 절)
- ② 다윗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사울을 설득시키려 노력함. (3-7 절)
 - 다윗의 행한 일은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한 일!
 - 다윗은 사심이 없을 뿐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 이스라엘을 구한 은인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

요나단은 권력욕이나 부자간의 정에 먼저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의 믿음을 잘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요나단의 설득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2. 다시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피하였습니다. (8-17 절)

1)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향해 또 다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8-10 절)

- 주목 -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금 다윗이 승리하자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더 심해졌을 것!
 - 이때 다시금 악령이 사울을 사로 잡고 역사했다는 사실!

2) 다윗은 자신을 몇 번이고 죽이고자 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위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런 다윗을 향해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 특히 '사울의 창이 벽에 박혔다는 것' 은 그만큼 다윗을 죽이기 원했다는 것을 확인.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크게 보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지키고 구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살기 등등하여 다윗을 헤아려 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 집으로 도망하였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3)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밤 중에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려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11-17 절)

■ **주목 - 다윗을 살리는 미갈의 방법 1.**

➢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우상을 가져다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입혀 놓았다는 것!

✧ 여기서의 우상은 아마도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가정의 수호신으로 사용되던 사람 모양의 형상인 '드라빔' 일 것으로 추측..

✧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가정 안에도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

■ **주목 - 다윗을 살리는 미갈의 방법 2.**

➢ 사울의 전령들에게 다윗이 병들어 누웠다고 거짓말을 함!

- 아마도 다윗이 도망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기 위함이었을 것!

➢ 이후 17 절에서, 사울이 미갈에게 왜 '너는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미갈은 다윗이 놓아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함!

■ **생각하기 -** 그렇다면 과연 이런 미갈의 속임수와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한다면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이 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4)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있는 나뭇으로 피하였습니다. (18 절)

✧ '나뭇' 은 사무엘이 라마에 세운 선지자들을 가르치던 기숙학교.

3.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즉시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19-24 절)

- 1)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 번씩이나 사자들을 라마로 보내었습니다. (20-22 절)
 - ✧ 그러나 사자들은 하나같이 선지자들 무리에 속해 예언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 ✧ 곧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코 저들이 다윗을 체포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을 발견!

- 2)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친히 라마로 찾아가 직접 다윗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23-24 절)
 - ✧ 그러나 사울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에 사로잡혀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걸어가며 예언함!
 -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음!
 - ✧ 곧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무능력함을 드러냈다는 것!

곧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불문하고 그 삶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 항상 육체를 무기로 삼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 오늘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깨달았거나 새롭게 다짐한 내용이 있다면?